

OVERWATCH 2

킹과 에이스



MIRANDA MOYER 단편 소설

이야기  
*MIRANDA MOYER*

편집  
*CHLOE FRABONI*

세계관 자문  
*MADI BUCKINGHAM*

크리에이티브 자문  
*RAPHAEL AHAD, JEFF CHAMBERLAIN, JUSTIN GROOT,  
GAVIN JURGENS-FYHRIE, AARON KELLER,  
MIRANDA MOYER, DION ROGERS, ARNOLD TSANG*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디자인  
*COREY PETERSCHMIDT*

일러스트  
*VALENTINA REMENAR*

막시밀리앙 오리지널 콘셉트  
*ARNOLD TSANG*

도움 주신 분  
*MADDY COOK*



또 한 번의 연락이 종료되고, 막시밀리앙과 통제실 사이에 또 하나의 싸기가 박혔다.

조금 전까지 대화를 나눴던 홀로그램 투영이 사라지고, 맥스는 이제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유일한 조명은 그의 데이터 패드에서 비추는 것뿐이었고, 그 화면에서는 매끈한 진척도 막대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 데이터 전송: 23%...

몬테카를로의 동업자들은 반대하긴 했지만, 막시밀리앙과 탈론의 파트너십이 그를 곤란하게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는 관계였다. 탈론은 맥스의 자원과 은밀한 재정 관리 수단뿐 아니라 그의 사업 감각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고, 막시밀리앙은 경쟁자를 업계에서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아주 오랫동안, 양측의 완벽하게 형성된 균형을 깨뜨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상황이 달라졌다.

### 데이터 전송: 46%...

막시밀리안은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자기 카지노를 내려다봤다. 도박꾼들이 각자 테이블에서 일확천금을 위해 마지막 동전 한 닢까지 쏟아붓는 모습을 바라봤다. 전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 쉽게 비웃을 수 있었다. 지는 게임을 하겠다고 소유한 모든 걸 자의로 내놓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자기도 그들 중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탈론은 한때 맥스에게 확실한 패였다. 주저하지 않고 올인할 수 있었고, 그는 분명히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들과의 게임이 계속되고, 새로운 플레이어들까지 옆에 앉으면서, 그가 승리할 확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 데이터 전송: 71%...

하지만 막시밀리안이 확률을 극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경기 결과를 수정해 왔다.

비토리아는 금빛 인공 손에 들린 기화기를 한 모금 빨아들였고, 연보라색 연기가 그녀의 얼굴을 둘러쌌다.

“날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았어야지.”

흐릿한 사무실 창문을 통해, 막시밀리안은 몬테카를로의 남아 있는 부분을 바라봤다. 그가 프랑스 남부 전장에서 재미를 보기 오래전부터, 몬테카를로와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하지만 옴닉 사태 때 세계가 변화하면서, 그가 고향이라 불렀던 도시 또한 그렇게 달라졌다. 지난한 전쟁으로 인해 모두의 지갑이 달렸고, 그 바람에 과잉의 도시 몬테카를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맥스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이미 익숙했다. 마르세유 근처 작은 회사의 하급 회계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삶” 같은 건 충분히 경험했었다. 일부는 몬테카를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옴닉은 그보다 더 열악하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이 다른 이들도 있었다. 이 도시에는 차지해야 할 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고객들이 바로 그 증거였다.

맥스는 그런 고객들 중 한 명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비토리아 카프리는 디자이너 인공 신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다. 이탈리아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그녀는 전 세계적 명성을 얻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동류의 사람이 대부분 그렇듯, 그녀는 눈에 들어온 건 뭐든 빠르게 정복하려 했고, 그런 그녀가 가장 최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몬테카를로였다.

# 일부는 몬테카를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옴닉은 그보다 더 열악하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이 다른 이들도 있었다. 이 도시에는 차지해야 할 힘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 늑다리가 너무 말썽을 부리고 있잖아.” 그녀가 말했다. “내게 이래라저래라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지.”

일부는 몬테카를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옴닉은 그보다 더 열악하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이 다른 이들도 있었다. 이 도시에는 차지해야 할 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말한 늑다리는 릴리 폰 아르크스로, 부동산 재벌이자 몬테카를로를 지배하려는 열띤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또 한 명의 거물이었다. 다행히 맥스는 그녀의 투자 자문이기도 했다.

비토리아가 맥스를 향해 손가락을 딱 튕겼다. “서류를 좀 만들어 봐.”

비토리아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만 한다면 너무 순화된 표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성격을 감수하더라도 막시밀리안은 그녀에게 빛을 진 듯한 기분을 갖고 살았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그의 첫 번째 고객이었으며, 어쨌든 그녀의 연줄 덕분에 계속 여기 남아 있을 수 있었다. 그는 신중하게 다른 방식을 제안해 보기로 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카프리 님, 그건 현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맥스는 잠시 주저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격 경쟁으로 상대를 도태시키려는 시도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됩니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 라이벌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날 밤 처음으로, 비토리아의 검은 눈이 맥스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는 황금빛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내 얘기 잘 들어.” 그녀는 새된 목소리로 말했다. “너 이 게임에 애초에 끼기나 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건,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고.” 그녀는 한쪽 눈썹을 추켜세웠다. “알겠어?”

맥스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잘 알겠습니다, 카프리 님.”

그의 마음에 남은 건 비토리아의 모진 말이 아니라, 그녀의 어리석음이었다. 그녀는 정말 중요한 분야에서 상대를 능가하는 것보다 무의미하게 허영심을 표출하는 것에 만족했고, 그런 마음가짐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고객들은, 랑스 벨랑쿠르, 릴리 폰 아르쿠스, 살바토레 파리시까지, 대부분 그녀와 같은 관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는 폐간된) 한 매체에서는 그들을 ‘파벌’을 의미하는 “라 코트리”라 지칭했다. 맥스도 그보다 더 잘 어울리는 명칭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 다들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

어쩌면 비토리아의 말이 사실인지도 몰랐다. 그는 그들의 게임에 참여한 플레이어가 아니었다. 그렇다는 건, 그들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비토리아가 바라는 것처럼, 막시밀리안은 그녀가 원하는 복수를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가 할 일은 어렵지 않았다. 몬테카를로에서 가장 명망 있는 투자 자문인 맥스는 도시 거물 모두의 자산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복잡미묘한 소유권과 채무의 그물망을 헤쳐 나갈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건 오직 막시밀리안 하나뿐이었다. 비토리아의 재산을 이용해 릴리를 공격하는 건 간단한 일이었다.

그 공격의 여파가 가라앉았을 때 맥스가 그 보상을 수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더욱더 간단한 일이었다.

한 시간 내에 맥스는 비토리아를 위한 제안서를 완성했다. 그는 홀로그램 문서를 그녀 앞에서 흔들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는 말했다.

비토리아는 아무 말 없이 문서를 훑어봤다. 그녀는 릴리를 무시하는 문구를 확인하자마자 즉시 읽는 걸 그만두었다. 그녀는 홀로그램 문서에 서명한 후 맥스에게 돌려보냈다.

“이제 됐어.” 그녀는 그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맥스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시밀리안은 긴 회의용 테이블 상석에 서서 참석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뒤쪽 거대한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카지노를 둘러싸고 변창해

# 이 테이블의 상석에 서서, 그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옴닉에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에서 다들 뺏속 깊은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도 그런 기분에 익숙해질 것이다

가는 도시로 향했다. 최근 복원된 아름다운 시절의 건축물이 거부들을 위한 우스꽝스러운 놀이터를 장식하고 있었다.

막시밀리앙의 카지노 내 회의실에는 몬테카를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여섯 명이 모여 있었다. 그들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도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 모두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맥스는 그들이 불쾌해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그가 일하는 동안 그들이 서로를 향해 시도한 음모와 부정직한 계약, 조작 등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맥스는 그들을 오랫동안 붙잡아 둘 수는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어차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맥스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의 투자 자문으로 일하면서, 전 이 도시가 공허한 껍질에서 번창한 낙원으로 재건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몬테카를로는 단순히 예전의 영광을 되찾은 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 시절을 능가했습니다.”

“요점이 뭐지, 맥스?” 릴리가 불쑥 끼어들었다. “감상적인 이야기나 듣자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야.”

무기 거래상 랑스 벨랑쿠르가 의자에 기대앉았다. “여긴 바쁜 사람도 있다고.”

맥스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군요.”

그는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맥스가 보기에, 인간의 표정은 언제나 흥미로웠다. 아무 말 없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손님들에게서는 분노와 당혹감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콜레트 카세에게선, 뭔가 다른 것이 보였다. 아직 서른 살도 안 된 그녀는 이 거물들 중 가장 어렸지만, 다른 이들보다 눈치가 훨씬 빨랐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이 순간을 맥스는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이 테이블의 상석에 서서, 그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옴닉에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에서 다들 뺏속 깊은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도 그런 기분에 익숙해질 것이다.

“여러분과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 엄청난 특권이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맥스는 말을 이었다. “제게 일을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우셨겠지만, 여러분은 절 가족처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때 고용인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죄책감이라 할 수는 없었다. 그의 말은 들은 순간 그들은 어떤 걸 떠올렸기에 다들 할 말을 잊었던 걸까?

“하지만 제 기억에 가장 깊게 남은 건,” 맥스가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너그رو움이었습니다. 솔직히 하찮은 옴닉 따위에게 자신의 전 재산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통제권을 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맥스의 말은 사실이였다. 그들의 제국을 오랫동안 관리해 오면서, 막시밀리안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뒤엉킨 비상 협약과 신중하게 조율된 계약을 통해 모든 것을 자신이 좌우할 수 있게 해놓았다. 맥스를 그렇게 하찮게 대했던 이 거물들 덕분에 그는 그토록 많은 것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럽 최대 미디어 그룹의 소유자, 아니, 전 소유자인 펠리시테 바르드느콧방귀를 꾸었다. 하지만 희미하게 떨리는 입술에 속내가 드러났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녀는 말을 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의 게임에 끼어들생각은 없어.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맥스가 대답했다. 그녀는 고급 외투의 어깨너머로 그를 노려봤고, 그는 고개를 가웃 기울였다. “당신 자금의 통제권을 일임하는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펠리시테는 씩씩거리며, 휘둥그레진 눈으로 맥스의 금속 얼굴을 읽으려고 애를 썼다.

“블러핑이겠지.” 그녀가 매섭게 말했다. “허세를 부리는 거야!” 맥스는 테이블 전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맥스는 말했다. “제 밑에서 일하며 이 도시를 번성하게 하면, 우리 모두 성공을 거둘 수 있겠죠. 아니면 혼자 착각에 빠져 제 말이 ‘블러핑’이라고 주장하면서, 빈손으로 이 회의실을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비토리아 특유의 찌푸린 얼굴에 맥스가 지금껏 본 것 중에서 가장 어두운 표정이 드리웠다. “Carógná. (더러운 자식.)” 그녀가 새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하찮은 움늬이라고.”

“전화 한 통으로 이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파산하게 만들 수 있는 움늬이지요.” 맥스가 대꾸했다. “이제 도미노가 완성됐습니다, 친구들. 그걸 쓰러뜨릴지 말지는 모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회의실은 혼돈에 휩싸였다. 유행의 선도자 살바토레 파리시가 홀로그램 화면을 꺼내 이전 회계 연도의 계약서를 훑어봤다.

“액숨 판매... 런던 거래... 전부 배신이었군.” 그가 중얼거렸다.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동안, 그의 이마에 점점 더 많은 땀방울이 맺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이라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나!”

“이미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릴리가 맥스의 말을 대신해 주었다. 그녀도 자기 계약서를 살펴보고 있었고, 지금은 자신을 파멸시킨 세부 조항을 해석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날카롭게 한숨을 내쉬었다. “말도 안 돼...”

랑스와 비토리아는 경쟁하듯 맥스를 향해 가장 추악한 욕설을 쏟아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펠리시테가 수화기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면 좋은 얘기는 별로 없는 게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소란의 와중에도, 콜레트만은 아무 말이 없었다. 맥스는 흥미롭다는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동료들이 요란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머릿속으로 곤경의 퍼즐을 풀고 있었다. 그녀는 다리를 떨며 테이블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그녀가 맥스를 향해 돌아서며 손을 내미는 모습을 지켜봤다.

“함께 일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겠어, 막시밀리앙.” 그녀는 말했다. 그는 그녀와 악수를 했고, 콜레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후 긴 침묵이 이어졌고, 맥스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얼빠진 듯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만족스럽게 바라봤다. 콜레트는 싸우려 하지도, 협상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앞에 놓인 조건에 동의했을 뿐이었다. 한 번의 악수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았다. 그리고 이제는 다들 명확히 깨달은 것처럼, 그들 모두에게 같은 운명을 선고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씩 그녀의 뒤를 따랐다. 시끄럽게든 조용하게든,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지만,

납득의 단계에 들어선 이들은 맥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비토리아가 마지막이었다. 처음에 한바탕 미쳐 날뛴 후, 그녀는 이제 침묵에 잠겨 그를 노려보고만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황금 손의 관절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맥스가 그녀를 보며 두 팔을 벌렸다.

“당신도 협력해 주실 거라 생각해도 되겠지요, 카프리 님?” 그가 물었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녀의 자산을 맥스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더라도, 맥스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이제 그녀는 온전히 홀로 남겨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른 거물들이 힘을 합쳐 대응한다면, 그녀는 단 며칠 만에 이 도시에서 쫓겨날 수 있었다.

맥스는 그녀도 잠자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걸 듣고 싶었을 뿐이다.

비토리아는 떨리는 손길로 기화기를 입술에 가져가며, 애써 맥스의 시선을 외면했다.

능글맞은 웃음이 그녀의 입술을 뒤틀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어리석은 녀석... 넌 이제 겨우 진짜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에 가깝게 찾아들었다. “그리고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걸.”

맥스는 유쾌한 듯 고개를 가웃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 들을 수 있는 항복 선언은 그게 최선인 것 같았다.

“살아남을 순 있을 겁니다.” 그는 대답했다.

맥스가 손가락을 튕겼다. 종업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테이블을 둘러싸고 각각의 손님들에게 샴페인을 따라 주었다. 맥스에게도 샴페인 한 잔이 놓였다. 그가 진짜로 마실 수는 없었지만, 그 행위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

그는 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렇다면 건배를 하시죠. 몬테카를로를 위하여.”

참석자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며, 차례차례 잔을 들어 올렸다.

“몬테카를로를 위하여.”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

자신을 노리는 첫 번째 암살자를 만나면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두 번째 암살자를 만나면? 오히려 우쭐해진다.

막시밀리앙의 사무실은 그에게 있어 자부심의 대상이었다. 그 사무실이 포함된 카지노는 그의 모자이크 같은 자산의 첫 번째 타일에 불과했지만, 그가 지금까지 일해 온 모든 것을 상징했다. 인간이든 옴닉이든, 다른 존재가 막시밀리앙과 같은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어리석은 녀석... 넌 이제 겨우  
진짜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에 가깝게  
짚아들었다. “그리고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걸.”**

성공을 거둘 수는 없었다. 힘겹게 거둔 지금의 성공은 오직 그만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그토록 아꼈던 사무실이 모조리 잔해로 뒤덮인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단 하나의 가구도 성한 것이 없었고, 어마어마한 가치의 예술품들이 모두 산산이 조각나 있었다. 그 잔해 속에서, 그의 경비원들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갈라진 몸체에서 불꽃이 튀었다.

맥스는 책상의 잔해 앞에 서서 자기 앞에 도사린 거한을 바라봤다. 물론 거한도 그를 마주 바라봤다. 둘은 혼돈을 따라온 침묵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늘 그렇듯 수완가인 맥스가 먼저 자신의 패를 보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막시밀리앙이 차분하게 항복하듯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는 술 저장고의 남아 있는 흔적으로 다가가, 마지막 경첩에 힘겹게 매달려 있는 문을 열었다. “지난번 암살자보다는 훨씬 낫군. 물론 뒤편이라면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만 말이야. 한잔하겠나?”

뒤편은 맥스의 농담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뒤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맥스는 그에게 스카치 위스키 한 잔을 건넸다. 뒤편은 거대한 건틀릿을 들어 올려 엄지와 검지로 그 작은 잔을 받았다.

“나는 암살자가 아니다.” 한참이 지난 후 뒤편이 말했다. 그리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잔을 깨뜨려 버렸다. “암살자를 보내는 사람이지.”

맥스는 수트에 묻은 유리잔 조각을 털어냈다.

“아. 이번 달 초에 찾아왔던 손님도 당신이 보낸 거겠지?” 막시밀리앙이 물었다.

“네 암살자는 보통 실패하지 않아.” 뒤편이 말을 이었다. “빈손으로 돌아와서 목표가 거러를 제애했다고 말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었지. 아직까지는 그랬다.”

막시밀리앙은 그의 말을 믿었다. 아칸데 오군디무, 워낙 많아서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지만, 맥스의 기억이 맞다면세 번째 뎀피스트일 그는 자기 권위를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탈론은 대중의 눈에 띄는 법이 거의 없었지만, 조직 내의 그 누구도 뎀피스트의 실질적 및 비유적 철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없었다. 반대하는 건 죽음을,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했다.

맥스는 이전에 공격해 왔던 자에 대한 생각을 잠재웠다. 그는 손바닥 하나를 벌렸다.

“참 바쁜 사람인 것 같군, 아칸데. 아칸데라고 불라도 될까?” 맥스가 물었다. 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맥스는 말을 이었다. “내 제안이 흥미롭지 않았다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명백한 이유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맥스는 지금의 대화를 경계하고 있었다. 국제 금융이라는 게임에서 모든 도박사는 협상할 때 꼭 필요한 것만 공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공개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최대한 투명하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에티켓, 나아가 상식적인 예절이었다. 아칸데의 투명성은 벽돌과 같다고 해야 할 정도였고, 예의를 차리려는 말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다. 마음 약한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도전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말해 보라.” 아칸데가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그림에서 빠져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맥스가 말했다. “이건 내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 그림에 내가 남아 있어야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야.”

이성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맥스는 아칸데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남아 있는 책상의 흔적을 넘어 사무실 창을 통해 이제 텅 비어 버린 카지노를 바라봤다.

“내 수완은 이미 알고 있겠지. 내 돈과 자산까지... 그것만큼은 명확한 것 같은데.” 맥스가 말했다. “당신 능력은 인정하지만, 아칸데, 당신 조직에 이 모든 자산을 확장하기는커녕 관리라도 할 만한 사람이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군.”

그는 다시 아칸데를 향해 돌아섰고, 무뎠던 무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한쪽 눈썹이 올라가 있었다.

“내가 이 도시를 차지한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나는 오랜 세월을 희생해서 이 도시가 내 이익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구축해 놓았지.”

맥스는 손바닥을 펼쳤다.

“당신이 날 죽일 순 있을 거야. 내 왕좌에서 날 제거하고, 내가 떠나는 빈자리를 채울 수는 있을 테고. 하지만 그러면서 돈과 인력, 시간을 잔뜩 낭비하고 나서야, 지금의 몬테카를로를 손에 넣게 되겠지.”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한손으로 주먹을 쥐었다.

“아니면... 우리가 협력해서 새로운 몬테카를로를 차지할 수도 있어.

새로운세계를.” 그는 두 손의 손가락을 맞댔다. “알다시피, 선택은 당신 몫이야.”

아칸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맥스도 그의 말을 재촉할 생각이 없었다. 그도 지금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건 알고 있었다. 특히 아칸데 같은 남자에게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목표의 목숨을 살려준다는 건 생각만 해도 그의 자존심이 손상될 문제였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칸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냥감에서 시선을 뺐다.

“한동안 널 지켜보고 있었다, 막시밀리앙.” 아칸데는 말했다. “전 세계적 위기의 순간에 태어나, 한날 회계사에서 십 년 만에 제국의 지배자가 되다니... 그런 건 약자가 이룩할 수 있는 위업이 아니다.”

아칸데는 건틀릿을 들어 올려 손가락을 움직였다. 황금빛 금속에서 아른거리는 빛이 막시밀리앙을 매혹했다.

“네가 얻을 건 뭐지?” 아칸데가 물었다.

놀랍게도, 그건 맥스가 미리 고려했어야 하는 질문이었다. 그건 겉보기에는 불리한 거래였다. 그는 알고 있었고, 아칸데도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라 코트리기가 그들을 지배하는 맥스에게 그토록 강한 증오심을 표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제였다. 언제나 승리하는 건 도박장이라는 말도 있었으니까. 맥스가 탈론에게 도박장을 넘긴다면, 그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우선, 이점을 얻게 되겠지.” 맥스는 말했다. “내 제국은 광대해. 그리고 당신네 병력은 내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협상을 할 때 큰 도움이 되겠지.”

그는 아칸데의 건틀릿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맥스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일 테고.” 그는 말을 맺었다.

아칸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이미 거대했던 그의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일그러진 미소가 그의 입술을 뒤틀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음울하게 웃었다.

“다들 널 생존자라 하던데, 아무래도 잘못 알고들 있는 것 같군. 넌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 승리한다.” 아칸데가 말했다.

그는 거대한 건틀릿을 맥스 쪽으로 뺐었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맥스는 긴장했다. 아칸데는 황금빛 손바닥을 펼쳤다.

“함께 일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겠다, 맥스.” 아칸데가 말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싱긋 웃었다. “맥스라고 불러도 되겠지?”

맥스는 그 "친밀감"에 유쾌하게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칸데의 건틀릿을 붙잡고, 그 거대한 금속 손이 자기 손을 감싸 쥐는 걸 지켜본 후 악수를 했다.

아주 오랫동안, 양측의 완벽하게 형성된 균형을 깨뜨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 데이터 전송: 86%...

하지만 아칸데와 함께한 순간부터, 현실에 안주한다는 건 불가능했다.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탈론은 막시밀리앙의 자금을 모두 이용할 수 있었다. 한때는 그게 막시밀리앙이 조직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고, 탈론의 중추도 서서히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때 아칸데와 맺었던 계약은 어느새 맥스에게 불리해져 있었다. 그는 이제 아칸데와 함께 음모를 꾸미는 소수의 파트너 중 하나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 데이터 전송: 92%...

아칸데의 계약은 모두 광기에 가까웠고, 그에 대한 맥스의 신뢰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맥스가 새로운 제안을 조금씩 엿본 바로는, 자원이 끝없이 소모되어야 하는 탓에 탈론뿐 아니라 몬테카를로까지 종말을 맞고 말 것만 같았다. 그건 결국 맥스의 종말을 의미했다.

탈론과 함께 일한다는 건 안전과 보호를 의미했다. 통제를 의미했다. 이제 아칸데가 직접 그들의 운명으로 도박을 하는 걸 선택했다.

단 한 번의 악수만으로, 맥스의 삶은 영원히 달라졌다. 한동안 탈론은 그가 지금껏 위해 왔던 모든 것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었다. 하지만 지금의 탈론은 황금빛 족쇄에 불과했다.

### 데이터 전송: 완료.

맥스는 의자에 기대 앉아 어두운 아치형 천장에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오른손 손가락 사이로 포커 칩을 굴렸다.

막시밀리앙이 확률을 극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물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